

靳凡 중편소설 《공개된 연애편지(公開的情書)》 小考^{*}

金鍾碩^{**}

<목 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연애편지》와 '라오우제(老五屆)' 청년 지식인
3. 《공개된 연애편지》의 역사적 부침
4. 나가며

1. 들어가며

진관타오(金觀濤)와 류칭핑(劉青峰)은 “중국의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로 불리며 1980년대를 대표하는 부부 학자이다. 중국 역사·철학·사상 등 각 영역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뤘고, 특히 ‘주향 미래(走向未來)’ 총서 편집위원으로 사상계몽 운동을 주도하였다. 지금까지도 자신들을 “잔존한 이상주의자”¹⁾라 부르며 탐색을 멈추지 않는 치열한 지식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듯 사상 해방 운동과 문화 계몽에 힘쓴 사상가·학자의 상(像)이 강하기에, 이들이 청년기인 문혁 시기에 문학에 관심을 갖고 중편소설 《공개된 연애편지(公開的情書)》와 장시(長詩) 《태양도의 전설(太陽島的傳說)》(1986)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이 시기 젊은이들의 고통과 상처, 청년 지식인의 이상과 헌신 정신, 역사적 사명감을 표현하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갈망했

* 이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대학 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고려대학교 CORE 사업단 연구교수.

1) 劉青峰、黃平, <《公開的情書》與70年代>(<上海文化> 2009年 第3期, 2009), 100쪽.

음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다.

특히 류칭평이 진판(斬凡)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중편소설 《공개된 연애편지》는 문혁 시기인 1972년 3월 초고가 집필된 뒤 일부 청년들 사이에 필사본으로 전파되던 ‘지하 문학’ 텍스트이다. 문혁 종결 이후인 1979년 9월 초고의 장황한 논설을 대폭 삭제한 수정본이 완성되고, 항저우 사범학원(杭州師範學院)의 민간 간행물 《우리(我們)》에 게재되었다. 이후 1980년에 정식 간행물 《시월(十月)》 제1호에 발표되고 단행본으로 출판돼 ‘지표’ 위로 떠오른다.

에당초 이 소설은 공개 발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체제 밖’ 창작의 산물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류 문학의 규범과 조류에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했다. 작가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청년 세대의 새로운 추구”를 기록하고 “이 세대의 진실한 내면세계”를 묘사²⁾한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사상적·예술적으로 독특한 텍스트로 평가된다. 네 명의 주인공 전전(眞眞), 라오주(老久), 라오가(老嘎), 라오세먼(老邪門)이 1970년 2월~8월이라는 반년 동안에 주고받은 43통의 편지를 통해 문화혁명의 와중에서 한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인생의 이상, 애정, 사업, 조국의 운명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용감하게 탐색했는가를 격정적이고 서정적으로 서술하였다.³⁾

문혁기인 1972년에 이미 초고가 완성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상과 청년들의 정신 면모의 현장성이 직접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라오싼제’(老三屆) 세대의 문혁 제재 소설과는 차별성을 띤다. 문혁 종결 이후 사후적으로 창작돼 문혁이 초래한 트라우마를 감상적으로 고발하는 상흔 문학이나 허방된 시골에 대한 정신적 친근감을 보여주는 지칭 소설과는 전혀 다른 청년들의 사상적 탐색과 정신 면모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류칭평이 말한 ‘이 세대’와 ‘청년 세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범박하게 말하면 이 지칭은 문혁 시기 청년기를 거친 세

2) 劉青峰、黃平, 앞의 글, 96, 97쪽.

3) 황희경, <작가와 작품의 배경: 잃어버린 세대의 두 주인공 전전과 라오지유>(리유칭평 지음, 《공개된 연애편지》, 이가춘 옮김, 다섯수레, 1992), 13쪽 참조.

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부부처럼 문혁 초기 이미 대학 생이었던 ‘라오우제(老五屆)’ 세대를 가리킨다. 이 소설에서는 이들 ‘라오우제’ 대학 졸업생들이 경험한 억압적이고 차가운 현실 세계와 이에 압도되지 않고 부단히 자아를 찾아가는 탐색의 길과 발버둥치는 내면세계가 잘 드러난다.

또한 《공개된 연애편지》는 텍스트를 읽는 이의 입장과 독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개방성을 지닌다. 청년 세대의 탐색적 사유와 감정, 시대 의식 등이 편지글의 형태로 잘 드러나고 있기에 사변적인 ‘철리 소설’⁴⁾, 이상주의적·낭만주의적 색채가 물씬 풍기는 소설이자 ‘설교적 텍스트’⁵⁾, ‘지하 문학’의 형태로 문혁 시기 제한된 소수의 청년들에게만 비밀리에 전파됐다는 의미에서 ‘살롱 소설’⁶⁾ 혹은 ‘동인 소설’⁷⁾ 등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소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혁 시기 ‘지하 문학’에서 신시기 ‘지상 문학’으로, 1980년대 초반의 ‘논쟁작’에서 다시 장시간 ‘잊혀진 작품’으로 존재하다 최근 들어 재조명되는 드라마틱한 역사적 부침을 겪는다. 발표 직후 청년 독자층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나 주류 문학계의 냉대를 받았다. 80년대에 ‘지하’에서 건져졌으나 문학사에 편입되는 합법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줄곧 ‘논란이 있는’ 작품으로 간주되었다. 연구자들의 문학사관에 대한 조정과 잊혀진 일부 작품에 대한 재평가에 따라, 근년 들어 다시 ‘역사의 지표’로 떠올랐다.⁸⁾

본고에서는 우선 신시기 이후 문학 창작과 담론의 주도권을 갖는 ‘라오싼제’ 세대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라오우제’ 지식인들의 문혁 시기 내면세계와 치열한 탐색정신 등을 작중 주요 인물들의 형상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1980년대 초중반 이래 《공개된 연애편지》의 역사적 부침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소설에 내포된 역사적 의미와 한계 등을 살피고, 이 소설을

4) “신시기 문학의 사변적인 특징은 《公開的情書》라는 이 중편소설에서 최초로 표현되었다고 해야 한다.” (朱寨, <文學的新時期>, 《十月》 1983年 第2期, 1983.)
 5) 李雪, <蝙蝠的境地: 談《公開的情書》的歷史沉浮> (《海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年08期, 2012), 20쪽.
 6) 楊曉文, <試論文革時期的手抄本: 以《第二次握手》、《波動》、《公開的情書》爲例> (《言語文化論集》 第31卷 第1號, 2009), 223쪽.
 7) 李雪著, <歷史與當下的對話: 進入當代文學史的多種方法>, 人民日報出版社, 2015, 72쪽.
 8) 李雪, 앞의 논문, 19쪽 참조.

둘러싼 문단 환경과 역사적 콘텍스트 등의 변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평가와 연구 흐름에 이르는 통시적 과정을 살피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문혁 시기인 1972년에 필사본 형태로 청년들 사이에 회자되던 초고본의 면모를 현재는 찾을 수 없기에, 1980년에 문단에 공식 발표된 수정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공개된 연애편지》와 ‘라오우제(老五屈)’ 청년 지식인

《공개된 연애편지》는 서간체 소설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창작되었다. 따라서 익숙한 스토리 라인도,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상황이나 장면 묘사도 없다. 작중인물 전전(眞眞), 라오주(老久), 라오가(老嘎), 라오세먼(老邪門)이 1970년 2월 하순~8월 중순에 주고받은 43통의 편지를 통해, 문혁 시기 대학 졸업 후 각기 다른 지역으로 배치된 청년들의 내면세계를 진솔하게 드러낼 뿐이다.

그 중에서도 남녀 주인공 라오주와 전전이 라오가의 주선을 통해 주고받는 편지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이들의 서신 왕래를 통해, 문혁 시기 청년들의 내면의 곤혹감과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이상·사업·사랑과 우정, 조국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탐색과 자아 찾기가 펼쳐진다.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두 사람이 편지를 통해 사랑을 키워나가며 결국 연인이 되고, 전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 라오가는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며 새로운 자아 탐색의 길을 떠난다는 비교적 단순한 플롯만 있을 뿐이다.

2.1 ‘라오우제’ 청년 지식인과 문혁

《공개된 연애편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편지 그 중에서도 연애편지

는 비공개를 전제로 사적이고 내밀한 영혼과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자기 고백적’ 장르이다. 그렇기에 작중인물의 토로하기 힘든 감정과 정서, 사유를 드러내고, 때로는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상호소통의 매개체라는 장점을 지닌 반면, 플롯이나 인물 외적 환경의 묘사에는 취약한 약점을 내재한다.

작가는 이러한 독특한 체제의 소설을 창작한 이유에 대해 “1972년 제가 항저우에서 요양하던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량의 서신 왕래를 이용해 소설을 창작해 이 세대 사람들의 진실한 내면세계를 기록할 것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⁹⁾라고 밝힌 바 있다.

1969년과 1970년에 각각 대학을 졸업한 이후, 류칭평은 구이저우 칭진 중학(貴州淸鎮中學) 교사로, 진관타오는 항저우 플라스틱 공장(杭州塑料廠)으로 배치되었다. 이들의 회고에 따르면, 공장과 농촌으로 흩어진 일군의 대학생들은 긴밀한 서신 왕래를 통해 독서와 사고를 유지하고, 진리에 대한 각고의 탐색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대학 졸업생 사이에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들 역시 10여 명의 사상적 동반자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는데, 특히 1970~71년에는 하루에도 몇 통씩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를 통해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고 사회에 대한 관찰과 감정, 인생의 깨달음 등을 교류하였고, 심지어는 책을 필사해 보내기도 하는 등 서신 왕래는 상호간의 정신적·지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루트가 되었다.¹⁰⁾

류칭평은 문혁 이전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물리학과에서 중문과로 전과한 64학번이고, 진관타오는 같은 대학 화학과 65학번으로, 전형적인 ‘라오우제’ 세대이다. 결혼한 지 6개월 뒤인 1972년에 이 소설을 창작하였으니, 《공개된 연애편지》는 문혁 후기인 1970~71년에 이루어진 이들 세대의 경험과 상호 교류를 원형으로 삼아, “문학의 형식으로써 ‘라오우제’ 대학생의 심리적 체험과 현실적 처지를 가장 꺾진하게 반영한 텍스트”¹¹⁾이다.

9) 劉青峰、黃平, 앞의 글, 97쪽.

10) 劉青峰、黃平, 앞의 글, 97-99쪽; <金觀濤：八十年代的一個宏大思想運動>, 《經濟觀察報》第365期, 2008.4.26. 참조.

11) 李雪著, 앞의 책, 74쪽.

사실상 ‘라오우제’는 우리에게 낯선 명칭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1980년대 신시기 문학의 주류인 ‘라오싼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라오싼제’는 신중국 성립 전후에 태어났고 문혁 발발 당시 중고생이었으며, 이후 홍위병(紅衛兵)/지청(知青)으로의 드라마틱한 변모를 경험한 청년들이다. 또한 신시기 이후 문혁과 홍위병 시각, 지청 의식 등을 글쓰기의 기반으로 삼아 활발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담론 권력을 쥔 세대이다.

이에 반해 ‘라오우제’는 연령상으로는 ‘라오싼제’와 차이가 많지 않지만, 교육적 배경의 명확한 차이로 인해 차별성을 갖는 청년 지식인들이다. 1966년 문혁 이전 입학해 문혁 중에 졸업한 다섯 기(1966~1970) 대학생을 가리키며, ‘이과 1960~1965 학번, 문과 1961~1965 학번’ 학생으로, 통계에 따르면 총 67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신중국 성립 이후 문혁 시기까지, ‘구사회에서 태어나 홍기 아래 성장’하면서 초등학교~대학에 이르는 교육을 순차적으로 받았던 유일한 세대이자, ‘신중국 17년 동안 공산당의 적극적인 정치교육을 통해 가장 완벽하게 빚어낸 세대’이다. 이들은 대학 입학 전까지 “나는 타인을 위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다(我爲人人, 人人爲我)”는 집체주의 정신을 주입받고, 계몽 교육, 혁명 영웅주의 교육, 과학 사회주의 신앙 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중화민족을 위해 하루 속히 세계 민족의 선진적인 행렬에 진입시키고, 과학의 최고봉을 향해 용감하게 달려가 올라가는 것”이 그들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해 각고의 학습을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¹²⁾

1960년대는 오늘날처럼 대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정치 이데올로기와 혁명을 강조하는 사회 환경에서 사상적인 검증을 거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소수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라오우제’는 소수의 엘리트 청년 그룹이었고, 미래에 대한 이상주의적·낭만주의적 색채가 강한 세대였으며,

12) 李存修, <第一次誤機>(觀滄海 編, 《“老五屆”三十年風雲錄: 酸話苦辣自己說》, 山東文藝出版社, 1999), 63쪽; 錢理群, <不可遺忘的歷史——我讀《告別未名湖: 北大老五屆行跡》>(奚學瑤編, 《告別未名湖 北大老五屆行跡》, 北京: 九州出版社, 2013), 1-8쪽; 丁東、趙誠, <對話: “老三屆”與“老五屆”>, 《中國青年研究》1997年05期, 1997, 28-29쪽; 張人韜、肖習、李榮發, <“老五屆”大學生人才價值探討>, 《學習與探索》1980年 第4期, 1980, 31-36쪽.

문혁 당시 나이와 고등 교육의 영향으로 ‘라오싼제’보다 성숙하고 사변적 색채가 강한 지식인의 면모를 보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문혁으로 인해 1966년과 67년에 졸업한 두 기수 외에는 대학 커리큘럼을 거의 이수하지 못했고, 대학 전공에 부합된 직장에 제때 배정돼 일하지도 못했다. 기록에 의하면, 중앙의 형세 변화에 따라 홍위병 운동이 퇴조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해산(遣散) 작업이 1968년에야 시작되었다. 1965년과 66년 졸업생들은 1968년에 업무를 배정받았다. 그들은 ‘산간 지역, 농촌과 변방 지역’에 배치되었다. 1967년과 68년 졸업반은 국가 정책에 근거해 군대와 농촌에서 1년을 노동하거나 심지어 더 긴 시간이 지난 뒤에야 업무가 배정되었다.”¹³⁾ 이에 따라, 이들은 ‘아홉 번째 냄새나는 놈(臭老九)’이라는 멸시를 받으며, 기층으로 하방돼 개조를 받게 된다.

이렇듯 문혁 시기 대학 입학에서 기층으로의 배치, 조국과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아홉 번째 냄새나는 놈’으로 전락되는 드라마틱한 신분의 전환과 고통스러운 기층 생활의 경험 등은 이들이 문혁과 현실을 전면적으로 재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부정적 시대 현실에 대한 회의, 삶에 대한 고민과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삶과 사회에 대한 사색과 고민을 부단히 확장시킨다.

하지만 문학사에서 ‘라오우제’는 신시기 이후 자신의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 ‘침묵하는 일군(一群)’¹⁴⁾으로, “‘라오우제’ 출신 작가가 자신의 운명을 표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지닌 작품은 드물다.”¹⁵⁾ 따라서 ‘라오우제’ 문학 창작과 관련 연구는 거의 공백 상태나 다름없다.

《공개된 연애편지》는 이러한 ‘라오우제’ 세대의 문혁 후기의 정신 면모와 현실 상황을 고백체 형식으로 팝진하게 표현하고, 시대와 사회로부터 주변부로 밀려났던 이 세대의 은폐되었던 사상과 존재적 고민을 생동적으로 드러냈

13) [美] R. 麥克法誇爾、費正清 編, 《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中國革命內部的革命(1966-198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588쪽.

14) 李雪著, 앞의 책, 73쪽.

15) 丁東、趙誠, 앞의 글, 29쪽.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문혁 시기 사적인 채널을 통해 암암리에 공유되던 ‘라오우제’ 지식인의 정신 면모를 살피고자 한다.

2.2 《공개된 연애편지》에 표현된 ‘문혁’ 후기 ‘라오우제’의 집단 기억

《공개된 연애편지》는 ‘라오우제’ 대학생의 범위를 더욱더 축소하였다.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문혁의 발원지인 명문대 베이징 대학 출신이다. 이들은 해박한 지식과 이론적 주장을 갖고 있고, 견고한 ‘지하’ 독서 서클을 유지하고 있다. 이과(理科)적 배경을 지닌 채 문학과 예술을 뜨겁게 사랑한다. 출신에 ‘문체’가 있고, 정치적 입장은 ‘비주류’이다. 이들은 문혁에 대한 불만과 염증의 정서를 간직한 채, 독학하고 모색하는 자아 분투의 길을 앞장서 걷는다.¹⁶⁾

따라서 이 소설은 류칭평과 진관타오 부부의 핏진한 ‘역사 기억’을 작중인물들의 입을 빌어 ‘개인 기억’, ‘문학 기억’의 형태로 펼쳐 보이고 있다. 이들은 1968년과 70년에 기층으로 하방된 베이징 대학 “9천여 명의 청년 지식인 군체(群體)”의 일원이자, ‘잊을 수 없는 역사’를 살아간 이 세대의 ‘잊을 수 없는’ ‘고난 기억’과 ‘정신적 견지’, ‘하층 체험’이라는 베이징 대학 ‘라오우제’의 집단 기억¹⁷⁾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새장과도 같이 조용한 산골에 낫선 타향의 새 10여 마리가 머무르고 있네.
베이징대, 칭화, 난카이, 우한 대학, 쓰촨 대학 학생도 있다네……, 그들은 1970
년대에 성장했지만 오히려 화전 경작을 하는 도화원에서 살고 있다네. 이것이 무슨 ‘재교육’이란 말인가!¹⁸⁾

16) 李雪著, 앞의 책, 73쪽.

17) 錢理群, 앞의 글, 1-8쪽 참조.

18) 在這籠子似的、靜靜的山穀裏，棲息着十多只異鄉的鳥：有北農大的，清華的、南開的，武大的，川大的……他們生長在二十世紀七十年代，卻又生活在刀耕火種的桃花原裏，這是怎樣一種“再教育”呵。(靳凡, 《公開的情書》(中國作家協會 創作研究室, 時代文藝出版社, 2000), 180쪽. 이하에서 소설을 인용한 서지는 페이지만 표기하고자 한다.)

라오가가 라오주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한 대목이다. 여기서 시골 변방에 배치된 ‘라오우제’ 학생들의 처지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들은 속박의 공간을 의미하는 ‘새장’에 머무르는 새들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애당초 기층과 거리를 두고 있고, 기층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의식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화전 경작을 하는 도화원”과 같은 전근대적인 공간에서 자신들의 전공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과학 흥국(科學興國) 등의 슬로건을 통해 꿈꾸었던 이상을 전혀 펼치지 못한다는 박탈감과 비판의식 또한 배어있다. 따라서 마오쩌둥의 ‘재교육’에 관한 최고지시는 ‘라오우제’에게 있어 회의와 곤혹감,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초조함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나와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밑바닥에서 배운 바와 하는 일이 무관했고, 물질적·정신적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우리는 한 무더기 처리품으로 간주돼, 멋대로 배정하고 아무렇게나 처분했어. 수학역학을 배운 한 친구는 키가 크다는 이유로 화장터로 배치돼 시체를 치워. 물리를 배운 한 여학생은 간장을 팔게 했어. 나는 그러저럭 괜찮은 편이었어. 인민공사 중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교육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지 몰라.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면서도 막상 학생들에게 어떠한 유용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마치 지식이 곧 죄악인 것처럼. 19)

인용문에서 전전은 ‘라오우제’에 대한 기층 배치가 매우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발한다. 이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베이징 대학 출신이지만, 밑바닥으로 급전 직하되는 경험을 하였고, 대학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배정받으며 현실의 부조리를 느낀다. 인민공사 중학으로 배치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전전은 다른 친구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하지만 “지식은 곧 죄악”으로 간주되며, 지식인을 ‘아홉 번째 냄새나는 놈’으로 멸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하루하루 견뎌나가야 했다. 따라서 그녀는 “나는 이 시골 조그만

19) 可是, 我和其他的朋友們卻在底層, 用非所學, 備嘗物質生活和精神生活的艱辛。我們被視爲一批處理品, 胡亂分配, 隨意處置。學數學力學的一個同學, 因爲個子大, 被分配到火葬場抬死人。學物理的一個女同學去賣醬油。我還好, 在公社中學教書。可是我們不知道怎麼開展教學活動, 因爲既讓我們教書, 又不准我們教給學生任何有用的知識。仿佛知識就是罪惡。(228쪽)

마을 중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지만, 학생들의 눈 속에 아니 사회 전체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가련한 벌레야”²⁰⁾라는 자기 비하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자기 정서를 토로한다.

특히 낙후된 벽촌 시골로 배치된 이들의 박탈감은 더욱 컸다. 한 회고문에 의하면, 베이징 대학 출신 ‘라오우제’는 1970년 서북의 구이저우(貴州)와 동북의 라오닝(遼寧)에 1천여 명이, 안후이(安徽)에 5백여 명이 배치되었다고 한다.²¹⁾ 이를 통해 다수의 청년들이 ‘문혁의 처리품’이라는 자기 비하와 자기 조소를 보편적인 정서로 품고 있었고, 이로 인한 곤혹감과 상실감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나는 행복이란 인류의 불안한 추구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 조화와 안정 속에 존재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너는 알겠지. 동란의 시대에 개인의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사회는 지금 격동하고 있고 분화되고 투쟁하며, 죽기도 새로 태어나기도 하며, 일부 야심가들은 망상에 사로잡혀 국가의 운명을 주재하려고 해. 뿐만 아니라 가정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대학생들을 문명 도시로부터 깊은 산과 황량한 들판으로 쫓아냈고 서로 떨어뜨려 격리시켰어. 예술의 향유도 언론과 취업의 자유도 완전히 박탈되었지. 많은 젊은이들이 청춘을 낭비하고 있고, 결코 그들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곳에서 자기가 배운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어.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란 말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치료할 조치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녀야 할 태도야.²²⁾

라오주가 전전에게 보낸 편지 중 한 대목이다. 앞선 인용문이 감정적·정서

20) 我這個鄉村小鎮中學的教書匠，在學生眼中，不，在整個社會眼中，是可有可無的可憐蟲。(181쪽)

21) 盧達甫，〈老五屆大學生〉(奚學瑤編，《告別未名湖 北大老五屆行跡》，九州出版社，2013.)，297쪽.

22) 我認爲，幸福永遠存在於人類不安的追求中，而不存在於和諧與穩定之中。你知道，在動亂的年代，追求個人美德是多麼不現實。社會在動蕩、分化、鬥爭、死亡、新生，一些野心家不但妄想主宰國家的命運，還把一個又一個的家庭擊碎，把大學生趕出文明都市，在深山荒野中相互被隔離開。什麼藝術享受，什麼言論和就業自由，全被剝奪盡淨。許多年輕人浪費着青春，被迫在並不需要他們的地方從事所用非所學的工作。難道這是正常的現象嗎？正視現實，從中找出療救的措施，才是我們年輕人應有的態度。(299쪽)

적 거부감을 드러내는데 반해, 이 문장에서는 문혁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과 비판의식이 드러난 동시에 이를 해결하려는 사명감이 강조된다. 이들 ‘라오우제’ 지식인이 진단한 문혁 시기는 ‘동란의 시대’이자, 온갖 비정상적인 현상들과 시대 현실에 영합해 권력과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야심가들이 횡행하는 시기이다. ‘라오우제’ 청년 지식인들은 ‘지식’과 ‘문명’으로부터 격리된 시골 변방으로 떨어졌고, 서로간의 연계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환경에 갇혀 있다.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시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청춘’을 낭비하는 일 없이 부정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치료할 조치를 찾아내는 것, 격동과 변화의 시기에 불안하지만 추구를 멈추지 않는 분투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우제’ 지식인이 지녀야 할 덕목과 자세인 것이다.

2.3 《공개된 연애편지》에 드러난 ‘라오우제’의 자아 찾기: 전전과 라오주의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앞 절에서 살핀 세 인용문은 ‘사고하는 세대’인 작중 인물들의 힘겨운 자아 찾기와 분투, 이상·사업·사랑과 우정, 조국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탐색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부조리한 현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분투하고 자기 정체성과 나아갈 길을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내적 고민과 상호 교류, 때론 설교식 주장 등이 여주인공 전전과 남주인공 라오주의 편지에서 주로 표현된다. ‘라오우제’의 정서적 곤혹감과 고뇌를 강조하고 있는 앞의 두 인용문은 전전으로 대표되는 대다수 ‘라오우제’ 세대의 정신 면모를, 부정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방향성을 강조한 마지막 인용문은 사상적으로 각성한 일부 ‘라오우제’ 지식인의 대표인 라오주의 정신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주인공 전전과 남주인공 라오주의 인물 형상은 각각 류칭평 본인의 자아 투사와 진관타오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편지로 인연을 맺은 낭만적 사랑 이야기가 이들 부부의 연애 경험과 일치하고²³⁾, 이들에게서 고급 간부

가정 출신인 류칭평과 고급 지식인 가정 출신인 진관타오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²⁴⁾

(1) 전전: 고난의 토로와 자아 찾기

여주인공 전전(眞眞)은 작가가 가장 성공적으로 형상화한 예술 전형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진실하고 용감하게 진리를 추구한다.²⁵⁾ 그녀는 라오주와 의 서신 왕래 중에 상당 분량을 할애해 문혁 시기 그녀가 겪었던 고난을 끊임 없이 호소한다. 편지에 표현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전은 고급 간부 가정 출신으로, 소녀 시대에 배양된 과학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강대한 사회주의 조국 건설을 위해 헌신하려던 이상을 지녔다. 대학 재학 시절 전전은 우월한 출신성분과 학업 성적을 바탕으로 왕성한 교내활동을 한다. 하지만 ‘홍위병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맞닥뜨린 운명은 가혹하기만 했다. 아버지는 감금당했고, 존경하던 이모부는 ‘반동 권위자’가 된다. 그녀 역시 ‘반동 조직의 자녀’, ‘정신 귀족의 냄새 나는 아가씨’가 되었으며, 다시 ‘2월 역류(二月逆流)’의 ‘흑수(黑手)’로 몰린다. 그녀는 특별 안전 심사팀의 감시에서 도망쳐 대강남북(大江南北)의 장엄한 산하로 달려가 진실하고 선량한 친구들을 얻는다. 이와 더불어 ‘홍위병 운동’ 시기 그녀의 불쌍한 처지를 동정하던 스텐(石田)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세속적인 작은 성공에 안주하려는 그

23) 李雪著, 앞의 책, 75쪽: 이와 관련해 진관타오는 “몇 년간의 사상의 전변을 총결하기 위해, 저는 사고의 결과를 드문드문 철학 칼기로 썼는데, 1970년 초에야 완성하였습니다. 이 칼기는 미술팀의 몇몇 벗들에게 진파되었고, 그것을 통해 저와 류칭평이 알게 됐으며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독자들은 류칭평이 진관(斬凡)이라는 필명으로 쓴 《공개된 연애편지》 속의 남주인공에게서 자신감과 열정을 지닌 사고자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金觀濤: 八十年代的一個宏大思想運動〉, 《經濟觀察報》 第365期, 2008.4.26.)

24) 진관타오의 부친은 항저우 대학(杭州大學)과 저장 대학(浙江大學) 화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던 중국의 저명 화학자 진송서우(金松壽)이다. 류칭평의 부친은 신중국 성립 이후 허난성 위원회 서기, 후베이성 위원회 서기, 문혁 이전 고등 교육부(高教部) 부부장 등을 거쳐 베이징 대학에서 공작대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한 바 있는 류양차오(劉仰嶠)이다.

25) 阮銘, <讓理想放出更加燦爛的光芒——評《公開的情書》>(斬凡, 《公開的情書》, 中國作家協會 創作研究室, 時代文藝出版社, 2000), 318쪽.

로 인해 괴로워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유부남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정의 감정을 이용해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하는 통루(童汝)라는 정신적 사기꾼을 만나 절망적 고통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이렇듯 ‘홍위병 운동’ 시기 시작된 불행한 운명에 대한 전전의 감상적(感傷的) 자기 토로는 전형적인 상흔문학의 패턴을 따른다. 그녀가 단순히 이런 모습으로만 계속 묘사됐다면 《공개된 연애편지》는 도식적인 상흔 서사의 틀에 갇혔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전전의 인물 형상을 보다 다층적으로 서술한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산간 중학에 배치된 기층에서의 삶은 그녀의 괴로움을 가중시킨다. 그럼에도 그녀는 조국과 인민, 삶, 대자연에 대한 강한 열정과 감정을 견지하고²⁶⁾, 특권이 박탈된 뒤 인간의 존엄성과 보통 사람의 권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²⁷⁾, 넓은 견문과 지적 욕구 속에서 ‘정신적인 해방’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지식과 새로운 사상을 추구²⁸⁾한다. 하지만 뿌리 깊은 정신적 상처로 인해 의기소침한 정서와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정신적 초조감이 내면에 뿌리를 틀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해부하고 자신의 목표와 미래로 통하는 길,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²⁹⁾ 당위 의식을 견지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26) “나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꼈고, 내 조국, 인민, 삶, 대자연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가장 강렬하며, 가장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我感到, 我心中沸騰的熱情, 我對祖國, 對人民, 對生活, 對大自然的純最美、最強烈、最深沉的感情)” (191쪽)

27) 이때, 나는 인간이고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어야 하며, 남들과 똑같은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 특권이 박탈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지. (這時, 我才第一次感到: 我是個人, 我應該有人的尊嚴, 我應該有和別人一樣的權利。特權的被剝奪, 只能使我清醒。) (222-223쪽)

28)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걸어왔고, 그녀는 정신적인 해방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어. (她是爲了追求精神的解放而來的)”, “그녀는 견문이 넓고, 지적인 욕구가 강하네. 하지만 그녀의 지적인 욕구는 우리와는 다르다네. 우리는 지식과 진리의 심각성을 이해하여 미래를 전망하려 온갖 힘을 다하지만, 그녀가 지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걸세. (她見識廣, 求知欲強。但她的求知欲和我們的不同。我們是力圖去理解知識與真理的深刻性, 去展望未來; 而她追求知識, 追求新思想, 是爲了追求精神上的自由。)” (198쪽)

29) 하지만 나의 목표는? 미래로 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또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어찌 되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나 자신을 꼭 변화

모르는 곤혹감³⁰⁾ 속에 방황한다. 또한 연인 스텐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홍위병 운동' 시기 고통 받던 그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기울였기에, 자신이 '족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沒有掙脫鑲铐的人”)'이라는 자괴감에 시달리는 한편 진정한 사랑을 갈구한다.

이러한 총체적 곤혹감을 간직한 채 전전은 라오주와 편지 왕래를 하게 되고, 서로 총 27통의 편지를 주고받는다. 잦은 편지 왕래와 열렬한 토론, 라오주의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탐색의 길에 대한 대량의 사변적인 설교를 거쳐 전전은 라오주의 논리에 설복 당한다. 그녀와 라오주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마침내 전전이 내적 고통과 빈민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고 진정한 사랑이 실현된다.³¹⁾

이상에서 살필 수 있듯, 전전은 '홍위병 운동기'의 전형적인 피해자 형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내면에 곤혹감을 간직한 채,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찾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나아갈 길을 고민하며 현실에서 발

시켜야 한다는 거야.(可我的目標呢? 通往未來的路在什麼地方呢? 我活着又是爲什麼呢? 我不知道, 我不知道呵! 無論如何, 有一點我是清楚的: 我應該改變自己。) (181쪽)

30) 사실, 나는 전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고뇌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로 나의 의지와 능력을 복돋는 것이 결핍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원망합니다.(其實, 我根本不知道自己該干什麼. 我的苦惱是缺乏一個具體的目標來鼓舞我的意志和能力. 我惱恨自己。)(183쪽); 어쩌면 어느 날 나도 당신들처럼 분발해서 일을 좀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못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也許, 有一天, 我會象你們那樣振作起來, 干點事情. 但現在不行——我不知道從何處下手。)(183쪽); 길은 어디에 있을까? 내 눈앞은 운동 어슴푸레하고 밟밌은 지저분한 진흙이야.(路在什麼地方呢? 眼前是灰蒙蒙的一片. 脚下是肮髒的泥濘。)(182쪽)

31) 나는 밀폐된 체계 속에서 진리를 찾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광활한 세계로 끌고 들어갔어.(……) 너는 내가 개인적인 고민 속에서 고개를 쳐들게 했고, 나는 밝은 빛——우리 이 세대의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깊어져야 할, 저버릴 수 없는 책임——을 바라보았어.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진 않을 거야.(……) 나는 사람을 숨이 콕막히게 하는 그런 틀에 박힌 행복은 싫어졌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앞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채촉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이야. 나의 뜨거운 정으로 가득 찬 사랑을 너에게 바칠 수 있게 해 줘.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我在一個封閉的體系中尋找真理, 你拉我跳到一個廣闊的天地。(……) 你使我在個人的苦悶中抬起了頭, 我看見了光明——我們這一代人對祖國和人民所負有的義不容辭的責任. 我們決不把自己的命運交到別人手中!(……) 我厭惡那種凝固了的、令人感到窒息的幸福. 我們需要的是促使人拼命向前的激動人心的愛. 讓我把自己赤誠而熱烈的愛情獻給你吧! 現在, 我是多麼幸福呵!)(303쪽)

버둥 친다. 삶에 대한 열정과 '정신적인 해방'과 '자유'를 추구하고 개인적으로 분투한다. 하지만 명확히 나아갈 방향과 목표가 확립돼 있지 않았고 이론적 탐색이 결핍됐기에, 소설에서는 먼저 각성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묘사되는 라오주의 인도³²⁾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피계몽자'이자 약자의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다.

(2) 라오주: '사고하는 세대'의 각성한 지식인

전전의 인물 형상이 입체적으로 묘사되며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면, 라오주의 인물 형상은 시종일관 각성한 지식인, 이들 '사고하는 세대'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 사상적 인도자 형상으로만 묘사되며, 다소 평면적이고 밋밋한 느낌을 준다. 이는 작가가 '청년 세대의 새로운 추구'를 보여주는 전형 인물로 형상화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장황한 설교적 논조가 라오주 편지의 문체적 특징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오주(老久)라는 이름에서 지식인을 비하하던 '처우라오주(臭老九)'가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깨어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지식인 형상을 창조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연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라오주는 작가 사상의 전달자 혹은 담체³³⁾라 할 수 있다.

라오주는 초등학교 교사를 부친으로 둔 지식인 가정 출신이다. 문혁 초기 '수정주의 업무의 어린 후계자',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학술 연구에만 몰두하는 전형'³⁴⁾으로 비판받은 이력이 있고, 정치 운동과 '혁명'에는 전혀 관심

32) 라오세먼이 라오주에게 한 다음 권고들이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그녀를 만나는 중요한 목적은 그녀의 내면세계를 아주 철저하게 개조하는 것이야. 和她見面的主要目的, 是對她的內心世界來一番徹底的改造。”(291쪽); “자네가 이 숭고한 감정을 존중하고 그녀에게 지식과 힘, 행복을 주고, 그녀가 조국의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위대한 행렬 속으로 참여하라고 끌어오기를. 希望你能尊重這種崇高的感情, 給她知識、力量和幸福, 吸引她參加到爲祖國的未來而奮鬥的偉大行列中來。”(206쪽)

33) 李雪著, 앞의 책, 87쪽.

34) 66년 운동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도 약간의 충격을 받았지. 내가 우 아저씨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를 호소했던 편지가 학교로 되돌아왔을 때, 그것이 내 일상의 표현과 결부가 되어, 나를 수정주의 업무의 어린 후계자,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전적으로 학술 연구에만 몰두하는 전형으로 간주해 비판했지.(六六年運動開始不久, 我也受了點小沖

이 없다. 고급 간부 가정 출신의 여학생과 사랑했지만 신분상의 벽을 극복 못하고 첫사랑에 실패한 아픔도 갖고 있다. 문혁 시기의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이런 단편적인 묘사를 제외하면, “냉정한 이지파(理智派)의 대표”³⁵⁾인 라오주의 각고의 분투와 탐색 정신만 전편에 걸쳐 서술되고 있다.

졸업 이후 산간 지역으로 배치된 전전과는 달리 도시의 공장에 배치된 라오주는 평범한 외양과는 달리 시대의 흐름과 타협하지 않고, 견고한 내면세계를 견지하는 강건함, 격동기 속의 자기중심이 확고히 서 있는 인물³⁶⁾이다. 그는 문혁 시기 사회적 격동과 ‘동란’이라는 부정적 특질을 딛고, 이 시기를 새로운 사상적 각성과 성숙을 도모하고 조국이 자신에게 부여한 책임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계기이자 새로운 준비기로 승화³⁷⁾시킨다.

우리는 청년들의 사상이 왜 이렇게 혼란한가를 깊이 고뇌했어. 마치 이론의 위기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믿음을 근본적으로 상실하게 만든 것 같았어.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탐색하면서, 우리의 일이 일이 망망대해 중의 등불이 되어 많은 청년들에게 방향을 명확히 가리켜 주기를 바랐지.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였고, 분투정신이 상실되지 않도록 정열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애썼어. 우리는 많은 청년들과는 다른 길을 걸으리라 결심했지. 그것은 이론으로 탐색하는 길이었어.³⁸⁾

擊。因為替鄒叔叔鳴不平的信轉回學校，聯系我的日常表現，把我作為修正主義業務苗子、白專道路典型來批判。) (294쪽)

35) 李雪著, 앞의 책, 78쪽.

36) 그는 길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지 않아. 이것이 그의 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지. 그리고 현재 이렇듯 격렬한 변동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견고한 내면세계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他表面上是那麽平凡,但決不迎合時髦的浪潮。這幾乎是他十分突出的特點,而要在目前這樣激烈的變動中做到這一點,沒有一個堅強的內心世界,幾乎是不可能的。)(217쪽)

37) 오늘날 사회의 격동은 깊이 있는 것이라, 모든 사람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어. 동란의 시대는 안정된 시대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지.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빨리 성숙하게 만들고, 개인의 좁은 생활 테두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 조국이 자신에게 준 거부할 수 없는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지.(今天,社會的動蕩是深刻的,不可避免地影響到每個人的生活方式。動亂的年代提供了比穩定時期更多的機會——使一批有能力和才智的人迅速成熟了,開始從個人生活小圈子中擺脫出來,清醒地認識到自己對祖國義不容辭的責任。)(298쪽)

38) 我們深深苦惱的是為什麼年輕人的思想這麼混亂,似乎理論的危機已使很多人從根本上對未來喪失了信心。但我們努力探索着,希望我們的工作成為茫茫大海中的一盞燈,給年輕的朋友們

라오주는 사상적 동반자 라오세먼 등과 함께 대학 시절부터 ‘분투 정신’과 ‘정열’을 간직한 채, 사상적으로 혼란한 동세대 청년들에게 명확히 방향을 인도 해주겠다는 목표 의식 속에서 ‘이론으로 탐색’하는 자신들만의 길을 찾고 이를 개척해 나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라오주가 전전에게 보내는 편지에게 1인칭 ‘나’가 아닌 ‘우리’라는 호칭으로 자신의 관점을 주로 피력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각성한 ‘사상적 동반자’들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전전 및 ‘라오우제’ 세대 전체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라오주는 또한 전전과 대다수 ‘라오우제’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디로 갈 것인가”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그는 문혁이 야기한 부정적 현실을 해결하는 길을 혁명적 주류 이데올로기가 아닌 ‘이론으로 탐색하는 길’에서 찾는다. 과학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이를 통한 진보와 번영에 대한 믿음³⁹⁾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길은 궁극적으로 ‘조국’과 ‘민족’의 발전과 연계된 정확한 길이자, 역사가 ‘라오우제’ 세대에 부여한 소명⁴⁰⁾이다. 라오주가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개인의 행복과 해방’이 아닌 조국을 위해서⁴¹⁾이었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라오우제’ 세대와의 차별점이 드러난다.⁴²⁾ 보다 궁극적으로는 조국과 민족을 부강한 최강대국으

指明方向。我們堅持不懈地努力，不讓奮鬥精神喪失，不讓熱情的火花熄滅。我們決心走一條和許多年輕人不同的道路——在理論上進行探索的道路。(273쪽)

39) ① 우리가 과학을 믿고, 변증법을 믿는 것은 생활은 마땅히 진보해야 하며 진보는 과학에 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我們信仰科學，信仰辯證法，是因為我們認為生活應該進步，進步只有依靠科學。) (269쪽); ② 과학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 길을 잘못 선택했을 리는 없어. 과학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그건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向着科學前進，路是不會錯的。科學給我們以力量，是時代使我們意識到。) (212쪽)

40) 믿어봐. 우리의 길은 정확한 길이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우리 이 세대는 이미 역사의 부름을 들었어(相信吧，我們的道路是正確的，關鍵在於我們能夠走多遠。我們這一代已經聽到了歷史的召喚。) (197쪽)

41)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였어.我們學知識不是爲了自己呵! 我們是爲祖國而學。(295쪽)

42) 왜 내 마음속에는 과거의 무서운 그림자가 남아 있지 않느냐고 내게 물었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우리는 여지껏 개인의 행복과 해방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야.(你問我，爲什麼我心中沒有留下過去的可怕陰影? 問題在

로 만들고 역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학습하고 있지. 그 이유는 조국이 부강해야 하고 민족은 반드시 전진해야 한다고 깊게 믿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사명은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걷어차고 중화민족이 역사 발전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야.(43)

우리 이 세대는 우선 시대에 뒤쳐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야 하네. 아무리 우리가 간혀 있고, 속박 받고 박탈돼 있고 갖가지 세력에 의해 포위돼 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목숨 걸고 눈을 부릅뜨고 세계의 우리 동시대 사람들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각 영역에서 획득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발전을 관찰하고 좇으며 발견해야 하네. 다음으로, 우리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축적한 지식과 문명의 패기와 능력을 계승하고 이용해야 하네. 이런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종일관 약자이고, 멀리 나갈 수 없는 사람인거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탐색자여야만 한다는 것이네. 즉 자신의 필생의 노력과 창조적인 일로써 신세계를 개척해야만 한다는 거지.(44)

‘라오우제’ 세대에게 문혁은 여전히 온갖 부정적 현실과 속박으로 인식되지만, 라오주는 이러한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한다. 오히려 과학에의 헌신을 통한 동시대 세계 발전의 역사적 의미를 관찰하고,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식과 문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신세계’의 개척과 찬란한 미래를 견인하기 노력과 분투를 통해 ‘강자’가 되는 것, 이러한 전형적인 엘리트 지식인의 사유를 강조한다. 따라서 치열한 ‘탐색자’와 강인한 ‘전사’의 상(像)과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정신(45)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這裏：我們和別人的一個重要差別就是，我們從來不僅僅追求個人的幸福和解放。）(295쪽)

43) 我們刻苦地學習着，因為我們深信祖國要富強，民族要前進。我們的使命是踢開前進中的絆腳石，讓中華民族跟上歷史前進的步伐！(275쪽)

44) 對於我們這一代人來說，我們首先應該做一個不甘落後於時代的人。盡管我們被封閉着、被束縛着、被剝奪着、被種種勢力包圍着，我們仍然要拼命睜大眼睛去觀察、尋找和發現世界上我們同時代人在自然科學和社會科學各個領域裏所取得的有歷史意義的進展。其次，我們要有繼承和利用人類幾千年積累的知識文明的魄力和能力。不具備這種能力，我們就始終是個弱者，始終走不遠。當然，最重要的是，我們應該是個探索者，也就是說，要以自己畢生的努力和創造性的工作，去開拓新世界。(193-194쪽)

45) 진리를 추구하는 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킬 거야.(追求真

리한 노력이야말로 이 세대가 나아갈 대표적인 길이고, 현재는 소수인 ‘각성하는 탐색자’가 다수를 형성할 것이라는 신념과 자부심⁴⁶⁾을 피력한다.

내가 전에 말한 적이 있었지. 만약 현실 세계에 나의 이상형이 존재한다면 나는 아무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 온 열정을 다해 그녀를 사랑할 것이며 영원히 그녀에게 성실할 것이라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이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자신이 분투하는 사업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야.⁴⁷⁾

라오주에게 조국의 발전을 위한 분투와 노력, 이상과 사업은 사랑과도 연결되며, 등가의 가치를 지닌다. 라오주는 끊임없이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고⁴⁸⁾,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면모를 보인다.⁴⁹⁾ 하지만 사랑하고 사랑받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에 관한 접근 방식 역시 사랑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환경에 대한 개조와 투쟁, 쟁취를 강조하는 ‘전사’로서의 접근이다.⁵⁰⁾ 따라서 라오주

理, 需要付出代價, 那我們情願犧牲自己。) (212쪽)

46) 실제로 세상에 혼자 걸어 나온 거인은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러한 탐색의 길이 언젠가는 위풍당당한 대열을 형성하게 될 거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어.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쏟아 부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우리의 노력은 한 세대가 나아갈 길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 (實際上, 世界上沒有一個巨人是獨自走出來的。我們堅信, 雖然現在我們人數不多, 但在探索的道路上遲早會形成浩浩蕩蕩的隊伍。我們所經歷的痛苦和付出的努力決不會白費, 我們的努力正代表着一代人的出路。) (275쪽)

47) 내가早就說過, 如果現實世界中有我理想的人物, 那麼我會不顧一切地用我全部的熱情去愛她, 永遠向她表示忠誠。因為, 愛這樣的人, 就是愛自己的理想, 就是愛自己為之奮鬥的事業! (213쪽)

48) ① 나는 생명을 지닌 살아 있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해. (我是有生命的活人, 我需要去愛我所愛的人和接受別人的愛。) (187쪽); ② “만약 내가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거야. 설사 사랑하는 이가 달에 있다고 해도 그곳까지 가서 사랑할 거야.” (“如果我碰到了理想的人物, 我會不顧一切地追求。即使她在月球上, 我也要去愛。”) (186쪽)

49)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네. 우리의 감정은 떳떳하고 정정당당한 것이야. (我們忠於自己的感情, 我們的感情是光明磊落的。) (187쪽)

50) 나는 인생에서 무수히 존재하는 사랑 문제와 결혼 문제에 있어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고찰하고 연구해서 마침내 결론을 얻어냈다. ‘오늘날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투쟁해야 하며, 편견과 사회 관습과도 반드시 투쟁해야만 한다. 우리는 사랑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 현실 환경을 개조해야 하고, 진리의 칼을 쥐고 있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我考察, 研究了生活中大量存在的、愛情問題和婚姻問題上的不正常現象, 終於得出結論: 今天為了愛, 我們必須去鬥爭, 必須同偏見和社會習俗鬥爭。我們要改造這個不尊重愛的現實環境, 成為握着真理之劍的戰士。) (258쪽)

는 전전이 나아갈 길과 방향을 인도하려는 설득의 방식을 그녀의 사랑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끊임없이 강조한다.

이러한 강한 엘리트 의식이 배어있는 ‘탐색자’로서의 주체 형상은 개인이 나아갈 길을 조국이 부여한 사명과 등치시키는 주체이다. 전전 등이 고민하는 ‘개인 해방’과 ‘자유’를 탐색하는 ‘개인적 주체’보다는, ‘조국’과 ‘민족’으로 상징되는 집체의 발전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적 주체’가 집약된 ‘대아(大我)’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라오주에게 문혁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해결 방향에 대한 모색과 저항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문혁 후기 ‘라오우제’의 기층 생활에 대한 일상적 묘사도, 기층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농민과 일반 대중에 대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엘리트 ‘라오우제’ 세대 사이의 교류와 소통에만 머물러있는 한계를 드러낸다. 하지만 라오주의 인물 형상이 역사적 사명을 짊어진 ‘강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고, “문학가는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생활 원칙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⁵¹⁾는 작가의식의 발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라오주의 편지글 전편에 노정되는 강한 설교식 어조와 어휘에서 이들 세대가 성장기에 받았던 혁명 영웅주의 교육, 과학 사회주의 신앙 교육의 잔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 전편에 노정되는 이상주의적 걱정 의 토로, 주체의 능동성 강조, 사업을 혁명화하는 전시적 사유의 표출, 사랑과 혁명 사업의 동질성에 대한 자리매김, 동지와 전사의 호칭 방식 등에서 ‘17년 시기 문학’과 신중국 ‘지상 문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에 문학 종결 이후 공개 잡지에 메인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는 한 연구자의 지적⁵²⁾은 꽤 큰 설득력을 지닌다.

51) 靳凡, <彷徨·思考·創造——致《公開的情書》的讀者>, 《十月》1980年 第5期; 靳凡, 《公開的情書》(中國作家協會 創作研究室, 時代文藝出版社, 2000), 314쪽)

52) 李雪, 앞의 글, 21쪽 참조.

3. 《공개된 연애편지》의 역사적 부침

이렇듯 선명하고 강렬한 정신적 특징을 강조하는 낯선 체재와 풍격으로 인해 《공개된 연애편지》에 대한 평가는 역사 환경의 변천과 문학 규범의 변화, 연구 풍조의 변천 등에 따라 시기별로 극명하게 달라진다.

한 연구자가 소논문 제목으로 명명하듯, ‘박쥐의 처지(蝙蝠的境地)’⁵³⁾라는 단어에서 《공개된 연애편지》를 둘러싼 70년대/80년대, 문혁/신시기, ‘지하 문학’/‘지상 문학’이라는 극명한 이분법적 대립으로 인식되는 역사적 콘텍스트의 변화와 내재적인 연관 관계 사이에서 이 소설이 주류 문단과 문학사 서술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특징과 한계 등이 드러난다.

《공개된 연애편지》가 ‘지하 문학’의 잠류에서 지표로 떠올라 공개 발표될 수 있었던 계기는 1970년대 말에 성행하던 ‘상흔 문학’에 대한 비판과 문혁 시기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면모를 소개할 당위성 때문이었다.⁵⁴⁾ ‘상흔 문학’이 ‘사인방’의 폭로와 ‘고발’, 정신적 트라우마의 호소에만 그치는 천편일률적인 서사 패턴의 반복이라는 비판의식과 ‘사고하는 세대’의 적극적인 추구하고 탐색이 존재하였음을 소개함으로써, ‘무너진 세대’, ‘잃어버린 세대’라는 소극적 면모만이 아닌 ‘라오우제’ 세대의 총체적 정신 면모를 복원하고 드러내려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정본이 신시기의 주요 잡지 《시월》 1980년 1호의 메인 지면에 할당돼 발표된다. <편집자의 말(編者按)>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급속히 발전하는 70년대, 조국의 대지에 시비가 전도된 혼란한 세월 속에 진리

53) 李雪, <蝙蝠的境地: 談《公開的情書》的歷史沉浮> (《海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年08期, 2012)

54) 류칭평은 친구 리거핑(李革平)의 “현재 문학 작품은 많지만 모두 문혁에 대한 폭로적 작품이며, 단지 상처와 슬픔뿐이지. 하지만 이 소설은 다른데, 젊은이들이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상적 추구를 반영했지. 사람들이 문혁 시기에 이러한 면도 존재했다는 걸 잊게 하면 안 돼”라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劉青峰、黃平, 앞의 글, 97쪽.)

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관찰·사색·탐색을 묘사하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완강하고 용감히 나아가는 역정을 묘사하였다.”⁵⁵⁾라고 기술됐음을 감안하면, 주류 문단에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편집진이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이 공개 발표된 이후, 사회적으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문학을 경험한 청년 독자층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고, 이를 반영하듯 《시월》 편집부에 독자들의 편지가 쇄도하였다.⁵⁶⁾ 이에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 1980년 《시월》 제5호에 류칭평이 독자에게 보내는 글과 환밍(阮銘)의 평론⁵⁷⁾이 게재된다. 환밍의 평론은 이 소설이 청년 세대의 진실한 친형을 창조하였고, 이 세대의 이상과 사랑에 대한 탐색을 하였으며, 예술적·사상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인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와 동시에 대중과 유리되고 소시민적인 면모를 보이는 인물 형상의 일부 단점을 지적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한다. 1981년 3월에는 ‘시월 문학 총서(十月文學叢書)’의 일환으로 소설집이 정식 출판되고, 이 두 편이 부록으로 실린다.

《공개된 연애편지》가 공개 발표된 이후, 신중국 성립 이래 지속돼 왔던 주류 비평적 관점에 입각한 비판이 속속 발표된다. 작중 인물의 편지에 나오는 눈에 거슬리는 어휘나 표현, 개인의 독립적 사고 등을 문제 삼으며,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⁵⁸⁾

55) <《公開的情書》의編者按>, 《十月》1980年 第1期; <原編者按>(北京市文聯研究部編, 《爭鳴作品選編·第二輯》(內部資料), 北京市文聯研究所, 1981), 157쪽.

56) 류칭평의 다음 회고는 뜨거운 사회적 반향의 단면을 드러낸다. “소설이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니, 약간은 우리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얼마 뒤, 《시월》 편집부에서 독자들의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편지가 갈수록 많아졌는데, 신장(新疆) 등 변경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가 모두 있었습니다.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물론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그녀들은 작가에게 자신의 경력과 고민을 열정적으로 토로하였습니다.”(劉青峰、黃平, 앞의 글, 98쪽)

57) 斬凡, <彷徨·思考·創造——致《公開的情書》的讀者>; 阮銘<讓理想放出更加燦爛的光芒——評《公開的情書》>

58) “누군가 말하기를 이 작품은 이야기가 없고 우여곡절도 없으며 클라이맥스도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몇몇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는 어휘 몇 개를 골라내어 그 위에 다시 증오의 빛으로 덧칠하곤, 올바른 길을 벗어나 도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斬凡, <彷徨·思考·創造——致《公開的情書》的讀者>, 《十

이 소설을 청년들의 삼각관계를 쓴 애정 소설로 간주하고, “라오주는 그렇게 사회의 공중도덕을 무시하고, 개인적 추구를 가장 높게 간주하며 ‘사상 해방’의 표지로 삼고 가송과 제창을 하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터무니없을 뿐더러 실천적으로도 해롭다”, “사랑에 대한 추구, 사랑을 위한 투쟁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적 사상, 고상한 정조를 무기로 삼아야 하지, 부르주아, 싹뻗 부르주아적 사상으로 개인의 열광과 환상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없다.”⁵⁹⁾는 구니(谷泥)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완밍과 구니의 평가는 《공개된 연애편지》에 대한 주류 비평의 양 극단을 보여준다. 라오우제 청년들의 적극적인 측면에 대한 옹호와 더불어, 신중국 성립 후 굳어진 주류 비평의 입장을 뒤흔들 수 있는 ‘이단성’, 예컨대 새로운 도덕관, 집체의식보다는 개인의 독립적 사고와 정신적 추구를 강조하는 경향 등에 대한 경계와 신랄한 비판이 엇갈렸고, 점차 후자가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신중국 성립 이래 형성된 ‘주류 문학’의 사상적 틀과 메커니즘 속에 가장 ‘높고’ ‘완벽하며’ ‘돌출된’ 주류 인물의 형상과 서사 구조에서 《공개된 연애편지》가 벗어나 있었고, 문혁 시기 몇몇 청년들의 사적인 편지 왕래를 민감한 ‘여론 영역’에 ‘공개’했으며, 역사적 진실을 주류 비평을 포함한 관방이 규정하는 ‘역사 기억’이 아닌 문학적 ‘개인 기억’의 형태로 과장·곡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⁶⁰⁾

결국 《공개된 연애편지》에 대한 비판은 문혁 종결에서 1980년대 초에 이르는 ‘문학 전환기’ 주류 문단의 고민과 문학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문혁’ 실패 이후 초래된 각종 사회적 위기와 국민들의 의식의 위기 등을 극복하고, 중국 공산당의 권위와 새로운 덩샤오핑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시기 주류 문학 서사와 문학 규칙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주류 작가’

月》1980年 第5期: 靳凡, 《公開的情書》(中國作家協會 創作研究室, 時代文藝出版社, 2000), 314쪽)

59) 谷泥, <謳歌的是什麼“新道德”?>, 《文藝報》1980.6.26.; 靳凡, 앞의 책, 296쪽.

60) 程光焯, <文學的緊張: 《公開的情書》、《飛天》與八十年代“主流文學”>(《南方文壇》2006年 06期, 2006), 14-22쪽 참조.

와 ‘주류 서사’의 출현을 독려하고 ‘폭로와 광명’의 관계의 비율을 확정 지으며, 정확한 ‘인생관’ 및 ‘건전하고’ ‘발전적’이며 ‘낙관적인 문학 정신을 제창하는 것 등의 기존 1950~70년대의 문학 법칙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키고 보충시켰다.⁶¹⁾ 따라서 《공개된 연애편지》처럼 정치 이데올로기와 주류 문단의 규범에 맞지 않는 ‘이단’은 작품의 해석권을 갖는 주류 비평의 비판을 거쳐 배제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1983년, ‘정신 오염 제거’ 운동 중에 《공개된 연애편지》는 결국 신시기 문학 중의 ‘오물’로 지명돼 비판당한다. 그러나 이 당시 류칭평은 이미 중국 과학원(中科院)에서 일하고 있었고, 문예계와 아무 연관이 없었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⁶²⁾ 이 시기 이후 주류 비평은 기본적으로 이 소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한다. ‘70년대와의 급한 작별과 긴박한 재건’이 신시기 서술의 관건⁶³⁾이었기에, 70년대의 시대정신을 담은 이 소설은 냉대와 배제 속에 망각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70년대 말 이후 문학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이 소설에 대한 문단의 비판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작가의 주류 문단 ‘체제 밖’의 신분 역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주류 비평에서 체제 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적 측면과 신시기 주류 문단의 콘텍스트의 변화에 따라, 《공개된 연애편지》는 문련(文聯)과 작협(作協) 등 권위 있는 공식 기구에 의해 ‘정전’ 체제 밖으로 내몰리고 문학사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지 못한다. 먼저 내부 자료용으로 1981년 12월에 출판된 베이징시 문련 연구소(北京市文聯研究所)의 《논쟁작 선편·제2집(爭鳴作品選編·第二輯)》에서 《공개된 연애편지》는 ‘사랑·결혼과 윤리 도덕의 측면을 반영한 작품’ 중 하나로 분류돼 본격적인 ‘논쟁작’이 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내부적 기준에 따라, 이후 《공개된 연애편지》는 ‘정전’ 구조와 거리가 먼 선집류에만 간헐적으로 수록된다. 중국 작가협회에 의해 출판된 ‘신시대 논쟁작 총

61) 程光焯, <文學“成規”的建立——對〈班主任〉和〈晚霞消失的時候〉的再評論>, 《當代作家評論》 2006年 第2期, 2006, 27-29쪽 참조.

62) 劉青峰, 黃平, 앞의 글, 98쪽.

63) 李雪, 앞의 글, 23쪽.

서(新時代爭鳴作品叢書)》(1986)⁶⁴, 《신시기 논쟁 작품선(新時期爭鳴作品選)》(1988)⁶⁵ 등이 그 예이다. 그 결과 이 소설은 오랫동안 잊혀지게 된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문학사 관련 서술에서 오랫동안 사장됐던 이 소설이 1990년대 후반 홍쯔청(洪子誠)의 《중국 당대문학 개설(中國當代文學概說)》(1997, 홍콩 출판)에 본격적으로 서술된 이후 변화된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홍쯔청은 이 소설을 1970년대 '지하 소설'의 범주에 넣고 서술함으로써, 이후 문학사 서술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당대 문학사 서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준과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1970년대에 '필사본'으로 '지하'에서 전파된 중편소설 베이다오(北島)의 《파동(波動)》, 리핑(禮平)의 《저녁놀이 사라질 때(晚霞消失的時候)》과 함께 비교·분석하며, 이 작품들이 80년대 문학 창작에서 널리 언급된 '실존주의'와 계몽적인 '지식인 정신'을 공통적으로 제기하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 소설이 니체 식의 초인철학과 지성 의식을 전달했고, 사상 계몽과 사회 개조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행동을 제기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⁶⁶

이렇듯 오랫동안 저평가되며 사장되기 직전까지 내몰렸던 《공개된 연애편지》는 최근 들어,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2006년 이후⁶⁷)부터 재조명되고 있

64) 中國作家協會創研部編, 《公開的情書》, 時代文藝出版社, 1986.

65) 中國當代文學研究會教育分會編, 《新時期爭鳴作品選 第1冊》, 西北大學出版社, 1988.

66) 洪子誠, 《中國當代文學概說》, 香港: 青文書屋, 1997. 본고에서는 번역본인 《중국당대 문학사》(박정희 역, 비봉출판사, 2000)의 185-186쪽을 참조하였다.

67) ① 대표적인 관련 인터뷰 및 회고문은 다음과 같다. 劉青峰, 黃平, <《公開的情書》與70年代>, 《上海文化》2009年03期, 2009; <金觀濤: 八十年代的一個宏大思想運動>, 《經濟觀察報》第365期, 2008.4.26.; <金觀濤: 八十年代的一個宏大思想運動>, 《經濟觀察報》第365期, 2008.4.26. ② 대표적인 논문들로 다음을 들 수 있다. 程光輝, <文學的緊張: 《公開的情書》、《飛天》與八十年代“主流文學”>, 《南方文壇》2006年06期, 2006; 何言宏, <正典結構的精神質詢: 重讀靳凡《公開的情書》和禮平《晚霞消失的時候》>, 《上海文化》2009年03期, 2009; 楊曉文, <試論文革時期的手抄本: 以《第二次握手》、《波動》、《公開的情書》為例>, 《言語文化論集》第31卷第1號, 2009.10; 張春田, <“真正的思想創造並不怕怕黑夜”——金觀濤、劉青峰訪問記>, 《粵海風》2010年第2期, 2010; 張志忠, <有待展開的當代文學可能性: 以《波動》、《公開的情書》和《晚霞消失的時候》為例>, 《文學評論》2010年04期, 2010; 吳曉雪, <論新時期初期小說中知識女性形象之異同: 以《晚霞消失的時候》與《公開的情書》為例>, 《北方文學》(下半月)2012年10期, 2012; 李雪, <七十年代與《公開的情書》>, 《小說評論》2012年04期, 2012; 李雪, <蝙蝠的境地: 談《公開的情書》的歷史沉浮>, 《海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

으며, 수시로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한다. 이는 문학사관의 변화, 공백을 메우려는 바람, 유적을 발견한 의식, 정전을 확장시키려는 의도 및 연구 방법론의 확장과 조정 등에 기인⁶⁸⁾한다.

“50~70년대에 대해 우리는 늘 ‘이단’의 소리를 찾으려는 충동을 통해 우리의 이 시기 문학이 결코 완전히 단일하고 생기가 없지 않았다는 상상을 지지하려 하였다.”⁶⁹⁾는 홍쓰청의 지적대로, 중국 당대 문학 연구자들에게 ‘이단’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이를 응당 있어야 할 자리로 복원시키려는 욕망과 콤플렉스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문혁 시기에 고도의 정치/혁명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주류 문학과는 다른 성격의 ‘지하’ 문학과 ‘이단’의 흐름이 분명 존재하였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또한 비평의 다원화에 따라 이러한 잊혀진 문학 자원의 재발굴과 재평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특히 문혁과 포스트문혁 시기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며 ‘지하 문학’과 ‘지상 문학’의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였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면서도, ‘주류 비평’에 의해 매도되고 ‘논쟁작’에서 ‘은폐된 작품’으로 부침의 세월을 겪었던 《공개된 연애편지》는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5~60년대에 태어나 소설이 발표된 1980년대에 열광적인 독서 체험을 했던 연구자들은 이 작품이 갖는 선명한 독립적 사고와 계몽 정신의 특징에 주목한다. 주류/비주류, 정전/논쟁작을 규정짓는 비평의 틀 내지 문학 질서가 80년대 초중반 관방 담론에 입각한 비평과 논쟁을 통해 재정립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렇듯 굳어진 비평틀과는 다른 ‘계몽성’과 ‘독립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가장 선명한 역사적 특징을 지닌 계몽주의적 문학 정전⁷⁰⁾으로 평가하며, ‘논쟁작’에서 ‘정전’의 위치로까지 가치 복원을 꾀하는 연구자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이 소설을 둘러싼 1970~80년대 문학 교체기의 주류 문학계의 콘

學版) 2012年 08期, 2012.

68) 李雪, 앞의 글, 24쪽.

69) 洪子誠, 《問題與方法》, 北京大學出版社, 2010, 74쪽.

70) 何言宏, <正典結構的精神質詢: 重讀靳凡《公開的情書》和禮平《晚霞消失的時候》> (《上海文化》 2009年 03期, 2009), 87쪽.

텍스트의 변화와 새로운 문학 규범의 형성 등을 분석하려는 경향⁷¹⁾, “현재의 문학 창작에 유익한 본보기를 제공한다”⁷²⁾는 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문혁’의 시공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포스트 80’(“80後”) 연구자들은 이들이 성장하고 경험한 현 시대에 필요한 ‘청년 주체의 재건’을 위한 준거점⁷³⁾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한다. 개혁개방 이후 가속화된 시장경제 체제의 강화와 결합된 상업화에 따른 자기 연민적인 ‘청춘 회고’의 문학 열풍을 경험하고, 이 세대에게 결핍된 ‘고난 속에서도 분투와 탐색을 지속하는 독립적 주체’의 상이 매력적인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라오우제’ 세대와 문혁 사이의 관계⁷⁴⁾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 새로운 시각 또한 주목할 만하다.

4. 나가며

이상의 분석을 통해 《공개된 연애편지》에 드러난 문혁 시기 ‘라오우제’ 세대의 정신 면모와 ‘각성한 주체’로서의 독립적 사고와 분투와 탐색 정신이 갖는 의미와 한계 등을 고찰하고, 1980년대 이래 ‘주류 문단’의 비판과 신시기 초기 문단 환경의 변화와 이 소설의 역사적 부침 등이 갖는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사실상 《공개된 연애편지》는 기존의 경직된 사상에 대한 해방과 돌파를 시도한 탐색성이 강한 문학이었고, 그렇기에 기존 주류 비평의 ‘정진’ 체제 밖

71) 程光焯, <文學的緊張: 《公開的情書》、《飛天》與八十年代“主流文學”>, 《南方文壇》 2006年 06期, 2006.

72) 張志忠, <有待展開的當代文學可能性——以《波動》、《公開的情書》和《晚霞消失的時候》爲例>(《文學評論》 2010年 04期, 2010), 147쪽.

73) 楊慶祥、金理、黃平, <80後“寫作與“中國夢”(下)——“我們時代的文學想像與文學生產”之一>(《上海文學》 2011年 6期, 2011).

74) 李雪, <七十年代與《公開的情書》>, 《小說評論》 2012年 04期, 2012; 李雪, <蝙蝠的境地: 談《公開的情書》的歷史沉浮>, 《海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年 08期, 2012.

으로 배제되고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적 텍스트였다. 하지만 특정 이데올로기와 문단 환경에 의한 ‘정전화’ 과정의 대척점에서 있는 이 소설을 통해, 1970년대 ‘청년 지식인’들의 생동적인 사유 체계와 정신 면모를 살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에게 결핍돼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가에 대한 긍정적인 ‘준거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 류칭평은 한 인터뷰에서 《공개된 연애편지》는 “문학 중의 독립적인 반사(反思)의 산물이며, 완전히 새로운 생활 태도와 경계(境界)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정신적 독립과 자아에의 충실함, 국가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귀결시킬 수 있으며, 두려움을 모르는 반사(反思) 정신으로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표현했으며”, 소설 속에 “고양된 자아해방, 독립적 사고, 시대 조류에 영합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이러한 정신과 생명의 의의를 생활과 사랑을 포함한 각 측면까지 관통한 것은 오늘날 중국인들 가운데 매우 드문 것”⁷⁵⁾이라며 이 소설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사실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탐색은 문학의 본질적 가치 중 하나이다. 이러한 탐색 정신과 이상주의적 신념에 기반한 분투 정신은 배금주의와 전지구적 자본의 논리가 만연한 오늘날,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문학이 견지해나갈 가치와 자세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 參考文獻 >

- 靳凡, 《公開的情書》, 中國作家協會 創作研究室, 時代文藝出版社, 2000.
 _____, 《공개된 연애편지》, 이가춘 옮김, 다섯수레, 1992.
 [美] R. 麥克法誇爾、費正清 編, 《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中國革命內部的革命(1966-198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觀滄海 編, 《“老五屆”三十年風雲錄: 酸酷苦辣自己說》, 山東文藝出版社, 1999.
 奚學瑤 編, 《告別未名湖 北大老五屆行跡》, 九州出版社, 2013.

75) 劉青峰、黃平, 앞의 글, 100쪽.

- 孟繁華, 《新世紀文學論稿: 文學思潮》, 現代出版社, 2015.
- _____, 《1978: 激情歲月》, 山東教育出版社, 1998.
- _____, 程光燾, 《中國當代文學發展史》(修訂版), 人民文學出版社, 2011.
- 北京市文聯研究部 編, 《爭鳴作品選編·第二輯》(內部資料), 北京市文聯研究所, 1981.
- 李允豹、李正平 編, 《一九八三年中國文學論文觀點匯要》, 河南省社會科學院情報研究所, 1983.
- 李雪, 《歷史與當下的對話: 進入當代文學史的多種方法》, 北京: 人民日報出版社, 2015.
- 張志忠 主編, 《中國當代文學60年》, 高等教育出版社, 2009.
- 程光燾, 《七十年代小說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 _____, 《文學講稿: “八十年代”作為方法》, 北京大學出版社, 2009.
- 洪子誠, 《中國當代文學概說》, 香港: 青文書屋, 1997.
- _____, 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 비봉출판사, 2000.
- _____, 《問題與方法》, 北京大學出版社, 2010.
- 도미니크 라카프라 지음, 육영수 역음, 《치유의 역사학으로: 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8
- 高松, 《1970年代的青年思考者: 以《波動》、《晚霞消失的時候》和《公開的情書》為例》, 上海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
- 袁方芳, 《“文革”時期的手抄本小說》,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 劉青峰、黃平, <《公開的情書》與70年代>, 《上海文化》2009年 03期, 2009.
- 谷泥, <謳歌的是什麼“新道德”?>, 《文藝報》1980.6.26.
- 竇玲玲, <兩種力量的角逐: 從新時期初期《公開的情書》的評價看當時的文學狀況>, 《青年作家》(中外文藝版) 2011年 05期, 2011.
- 廖建斌, <“天使”的淪落與拯救: 試談三篇“反思文學”的女性形象>, 《解放軍藝術學院學報》2000年 04期, 2000.
- 楊慶祥、金理、黃平, <80後“寫作與“中國夢”(下)——“我們時代的文學想像與文學生產”之一>, 《上海文學》2011年 6期, 2011.
- 楊曉文, <試論文革時期的手抄本: 以《第二次握手》、《波動》、《公開的情書》為例>, 《言語文化論集》第31卷 第1號, 2009.10.
- 易言, <評《波動》及其他>, 《文藝報》1982年 第4期, 1982.
- 吳曉雪, <論新時期初期小說中知識女性形象之異同: 以《晚霞消失的時候》與《公開的情書》為例>, 《北方文學》(下半年) 2012年 10期, 2012.
- 李雪, <七十年代與《公開的情書》>, 《小說評論》2012年 04期, 2012.

- _____, <蝙蝠的境地: 談《公開的情書》的歷史沉浮>, 《海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年 08期, 2012.
- 張人韜、肖習、季榮發, <“老五屆”大學生人才價值探討>, 《學習與探索》1980年 第4期, 1980.
- 張志忠, <有待展開的當代文學可能性: 以《波動》、《公開的情書》和《晚霞消失的時候》為例>, 《文學評論》2010年 04期, 2010.
- 張春田, <“真正的思想創造並不懼怕黑夜”——金觀濤、劉青峰訪問記>, 《粵海風》2010年 第2期, 2010.
- 翟業軍, <“我可以原諒魔鬼, 但決不原諒庸人”: 新時期之初作家心態研究(之一)>, 《揚子江評論》2010年 06期, 2010.
- 程光燾, <文學的緊張: 《公開的情書》、《飛天》與八十年代“主流文學”>, 《南方文壇》2006年 06期, 2006.
- _____, <文學“成規”的建立——對《班主任》和《晚霞消失的時候》的“再評論”>, 《當代作家評論》2006年 第2期, 2006.
- 丁東、趙誠, <對話: “老三屆”與“老五屆”>, 《中國青年研究》1997年05期, 1997.
- 何言宏, <正典結構的精神質詢: 重讀靳凡《公開的情書》和禮平《晚霞消失的時候》>, 《上海文化》2009年 03期, 2009.
- 김종석, <禮平 《晚霞消失的時候》에 대한 비판과 재평가>, 《중국어문논총》50집, 중국어문연구회, 2011.9.
- <金觀濤: 八十年代的一個宏大思想運動>, 《經濟觀察報》第365期, 2008.4.26.(검색일: 2017.6.20.) (<http://www.aisixiang.com/data/32007.html>)

< Abstract >

The Study on Jin Fan's Novel *The Open Love Letter*

Kim, Jongseok

www.kci.go.kr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e Open Love Letter* written by Jin Fan(Liu qingfeng), was quickly spread to young generation with handwritten

copies and became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underground literature during the time of Cultural Revolution.

The Open Love Letter to young people shows the exploration of the Old Five Sessions("laowujie") in dark time with the epistolary style. The call for sincerity, the concern about the outlet of future China and the pursuit for personal involvement all greatly touched young gener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some characteristics, who is in the deep-level value for human feelings and reflecting the writer's intensive thinking over searching for self-identification of the Old Five Sessions.

This novel is recently regarded as classical text of the underground works in the 1970s, which was regarded as a controversial work and long forgotten, has been constantly touched upon by scholars in recent years.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y it has been neglected and brought up again.

Key Words: Jin Fan, Liu qingfeng, *The Open Love Letter*, the underground literature, the Old Five Sessions, laowujie, Cultural Revolu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7. 31	2018. 8. 18	2018. 8. 20	2018. 8. 27	2018. 9. 30

